

10-12절,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메시아의 고난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이었다. 어린양께서는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실 것이다.¹⁾ 속건제(아살ם אֶשְׁלָם)은 속죄제(카타스 קָטָאס)와 비슷하나 췌값의 보상이라는 뜻이 강조된다고 보인다.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이 길 것이다. “그 씨를 본다”는 말은 구원 얻은 자녀들을 본다는 뜻이며, 그 날이 길 것이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메시아께서는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뻐신 뜻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다(요 6:39-40).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메시아를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부르신다. 메시아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으셨다. 의로우신 메시아께서는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이다. ‘자기의 지식으로’라는 원어(베다토ו בְּדָתוֹ)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지식으로’라는 뜻이든지, ‘[택자들의] 그에 대한 지식으로’라는 뜻일 것이다. ‘의롭게 한다’는 원어(아츠디이크 אֶצְדִּיק)는 ‘의롭다고 여긴다’는 뜻이다. 메시아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대속(代贖)의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하였다.

1) 원문에 ‘그가 드릴 것이다’라는 동사(타실 אֶשְׁלָם)는 3인칭 여성이며 7절의 ‘잠잠한 양[암양](라켈 לָרַחֵל)이 주어라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셨다(요 1:29).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고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었다(마 20:28). 주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나누신 포도즙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를 상징했다(마 26:27-28).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였다(행 20:28). 사도 요한은 24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환상 중에 들었는데, 그 가사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내용이 나온다(계 5:9).

[12절] 이렇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메시아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버리시고 범죄자 중 하나처럼 죽으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 중에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과 강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또 메시아께서는 구원하신 자들을 위해 중보사역을 하시며²⁾ 그의 중보사역은 지금도 계속되신다. 로마서 8:34,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의 두 구절은 이 진리를 밝히 증거한다. 히브리서 7:25,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 ‘그가 기도하였다’는 원어(야프기아 **עָבַד**)는 ‘그가 간구한다, 중재한다, 중보한다’는 뜻이다(BDB).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는 구원 얻은 자들 곧 신약교회이다. 10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것은 그가 택자들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신 것이다. 주께서는 이런 대속 사역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롬 3:24). 죄인들은 그를 통해 의인이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중보사역을 계속하신다(히 7:25; 9:24).

둘째로,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해야 한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실제로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6:12-13,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에베소서 5:8-9,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셋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6: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후서 5: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